

統一新羅時代

特殊樣式的石塔

秦弘燮

一、序言

西紀六八二年 感恩寺 創建과 함께 建立된 同寺의 東西 二基의 三層石塔에서 定立된 우리나라 石塔의 새로운 樣式에는 三國時代 石塔과는 달른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고, 그 특징은 朝鮮時代에 이르기까지 계승되었으니 그러한 새로운 樣式을 典型樣式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典型樣式의 특징을 요약하면

- ① 基壇은 二重이고 上하 各 面에 隅柱와 撐柱가 模刻되고
- ② 上하의 基壇 甲石 上面에는 角形과 孤形의 上層部를 받기 위한 물덩이 있고
- ③ 塔身部는 二層屋身은 初層屋身에 비해 현저히 감축되었고 그 위의 上層部는 일정한 비율로 체감되었으며 屋蓋石은 初層부터 일정한 비율로 체감되었다.
- ④ 屋蓋石 밑에는 五단 내지 三단의 직각으로 꺾이는 層段 받침이 있고
- ⑤ 屋蓋石 落水面은 安단한 경사를 이루었으며
- ⑥ 屋蓋石 처마는 추녀에 이르기까지 수평이고
- ⑦ 屋蓋石 頂上에는 上層 屋身을 받기 위한 一단 혹은 二단의 角形 물덩이 있고
- ⑧ 基壇부터 相輪에 이르기까지 上하 平面은 方形이다.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樣式이 新羅, 高麗, 朝鮮으로 계승되는 동안 부분적인 변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형은 八세기 중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때로는 高麗時代에 계승되면서 더욱 심행하고 혹은 변화된 부분이 더욱 강조되기도 하여 그 시대 石塔의 樣式上의 특징을 이루기도 하니, 이러한 변형이 新羅時代 石塔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異型石塔이라고 불려서 분류하고 있지만 이 異型樣式이 高麗時代 石塔에 나타날 때에는 異型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도 있으니 이는 新羅時代에는 異色的인 樣式이었지만 高麗時代에서는 보편화된 까닭이다. 예컨대 單層基壇, 佛臺座形基壇, 屋身 밑의 別石 插入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本稿에서 다루려는 特殊樣式의 石塔이란 ① 典型樣式에서 벗어나는 특이한 樣式을 가춘 石塔을 말하지만 石塔 표면의 佛敎像 조각은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일종의 莊嚴으로 보아야 함으로 本稿에서는 特殊樣式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實相寺 百文庵 三層石塔에서는 石塔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佛敎像 또는 장식 조각 이외의 특이한 彫飾이 있어 일례만은 本稿에 포함시켰다.

二、特殊樣式의 내용

典型樣式에서 벗어나는 특이한 樣式이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서 基壇部나 塔身部에서의 변형은 물론 石塔의 형태 전체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양식상의 변화를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一) 基壇部의 변형

基壇部의 변형은 가장 다양하며 변형의 동기에는 간혹 창의성이 엮여이기도 한다. 그 형태는 다시 四종으로 분류되는데 ①單層基壇, ②佛臺座形基壇, ③石塊形基壇, ④四獅子形基壇 등이 그것이다.

① 單層基壇은 典型樣式에서 下層基壇이 생략된 형태이다. 地臺石 위에 바로 典型樣式에서의 上層基壇이 놓이게 되며 각 面石에는 隅柱와 撐柱가 模刻되고 甲石이 덮인다. 이러한 基壇形式은 典型樣式에서 보면 분명히 異型에 속하며 이러한 形式의 石塔이 統一新羅時代에는 十여기에 불과하여 異色の인 존재가 되지만 高麗時代에는 이 形式이 오히려 보편화되어 高麗時代 石塔의 六〇% 내지 七〇%가 單層基壇이다. 單層基壇의 발생 동기에 대하여는 분명히 밝히기 어려우나 다음에 言及할 佛臺座形基壇形式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컨대 到彼岸寺三層石塔에서는 仰蓮과 伏蓮을 갖춘 八角蓮花座形基壇 밑에 앞은 眼象帶가 있어서 下層基壇 같이 보이나 어디까지나 蓮花座의 형태가 중심이며 따라서 單層基壇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檢하여 添言하여 들 일은 單層基壇에 대하여 三重基壇의 石塔이 一基 있다는 사실이다. 즉 鷲谷寺三層石塔으로 그 建립연대를 羅末麗初로 추정하고 있어 高麗時代에 들어서의 建립일지 모르나 특이한 基壇형태의 石塔으로서 들어본다.

② 佛臺座形基壇은 統一新羅時代 石塔으로는 到彼岸寺三層石塔과 慶州石窟庵三層石塔의 二基뿐이지만 高麗時代가 되면 크게 유행한다. 到彼岸寺塔은 基壇을 平面八角으로 만들고 仰蓮石과 伏蓮石을 상하에 배치한 사이에 中石을 끼워 八角蓮花座의 형태가 분명하나 이에 대하여 石窟庵三層石塔은 二重의 基壇인데 上下의 中石은 八角이고 地臺石과 下基壇의 甲石은 圓形을 이루는 특이한 형태로서 분명히 佛臺座형식을 연상케하나 到彼岸寺塔에서와 같이 蓮花의 조각은 없다.

塔身部는 典型樣式에서의 方形을 유지하면서 基壇部만을 八角 또는 圓形으로 만들고 蓮花를 彫飾함은 塔身部 안에 納置된 佛舍利를 의식한 결과이고 佛舍利를 봉안한 塔婆의 基壇을 蓮花佛臺座形으로 변형시키는 일은 仰伏蓮을 갖춘 八角佛臺座가 크게 유행하던 시기에는 곧 착안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統一新羅時代에는 오직 二基만이 建립되었나.

③ 石塊形基壇은 자연암반을 基壇으로 삼는 경우와 六面立方體의 基壇인 경우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前者의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자연암반 위에 上層基壇 中石부터 구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初層屋身부터 축조한 것이다. 암반 위에 上層基壇부터 축조한 예로는 慶州南山葦長寺三層石塔을 들 수 있고 初層屋身 즉 塔身部부터 축조한 예로는 安東大寺洞石塔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石塔의 建立 위치가 山上에서 前方을 향하여 돌출된 암석을 택하여 眼下에 시계가 전개되는 위치를 택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위치를 택하여 建립된 石塔은 이 외에도 數例가 있고 石塔뿐 아니라 塔塔의 경우도 암반은 아니지만 前方으로 돌출되어 시계가 트인 지점을 택한 예가 있어 동일한 의도로 建立 위치가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高麗時代가 되면 더욱 현저해진다.

後者の 石塔은 慶州에 二基가 전하는데 二基 모두 八개의 石材로 正六面立方體의 基壇을 구축한 동일한 형식이며, 이러한 형식의 基壇은 우리나라 石塔으로는 이 외에 없다. 이러한 樣式的 유래에 관하여는 後章에서 다시 言及하겠지만 자연암석을 基壇으로 삼는 양식에서 온 것으로 보고자 한다.

④ 끝으로 四獅子形 基壇이 있다. 이 樣式的 石塔은 華嚴寺四獅子三層石塔을 대표작으로 삼으며 현재까지는 統一新羅時代에 二基, 高麗時代에 二基가 각각 建립되었고 그 여운은 朝鮮時代까지 미치고 있다. 이 형식은 二重의 基壇 중 上層基壇 四隅에 각각 獅子 한 마리씩을 배치하여 獅子들로 하여금 甲石을 받게 한 형식으로서 芬皇寺石塔, 佛國寺多寶塔 또는 義城觀德洞三層石塔에서와 같이 基壇 上面 四隅에 각각 獅子 한 마리씩을 배치하는 형식에서 착상하였을 것이며, 특히 樣式的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石塔은 佛國寺多寶塔으로서 多寶塔이 基壇 上面 四隅과 中央에 方柱를 세우고 隅柱 밖에는 石獅子 한 마리씩을 배치한 樣式에서 隅柱가 섰던 자리에 밖에 있던 石獅子가 대신 들어가면 華嚴寺四獅子塔이 되는 것이며, 多寶塔에서의 중앙 方柱는 大德立像으로 대체되어 樣式

上 가장 친근성이 있으며 이러한 기본양식은 다음 시대로 계승되고 있다. 獅子는 佛敎美術品에서 자주 등장하여 石造物 表現을 장엄하는 主題로 채택되지만 新羅時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雙獅子石燈은 石塔 이외의 현저한 用例의 하나이다.

(二) 塔身部の 변형

塔身部の 변형은 基壇部에서보다 더욱 다양하다. 屋身이나 屋蓋石의 일부를 변형시키거나 특별한 彫飾을 가하는 일은 물론이지만 塔身部 전체를 변형시킨 예도 있다. 塔身部 전체를 변형시킨 石塔은 따로 일괄하기로 하고 本項에서는 屋身이나 屋蓋石의 일부를 변형시키거나 특별한 彫飾을 가한 예만을 들기로 한다.

① 屋身 밑에 別石을 삽입하여 받침을 삼은 石塔이 있다. 이러한 樣式은 高麗時代에 크게 유행하나 그러한 樣式이 이미 統一新三時代부터 나타나서 주목된다. 즉 聖住寺址에 東西로 나란히 건립된 羅基의 三層 石塔이나 上層基壇 甲石 上面에 얇은 角形과 孤形의 돌덩이 조각되었고 그 위에 다시 別造의 받침돌을 얹었는데 上面에는 角形과 孤形의 돌덩이 있고 밑은 內彎되게 곡선음 그리며 깎아내어 마치 木조건물의 소리를 연상케 한다. 이와 유사한 형태는 桐華寺 毘盧庵 三層 石塔에서도 볼 수 있는데 上層基壇 上面에 얇은 돌덩이 있고 그 위에 다시 높은 받침이 있어 그 上面에도 돌덩이 있되 밑은 안으로 半圓을 그리며 파여졌을 뿐 甲石과 분리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樣式은 典型樣式의 石塔에서는 볼 수 없는 異例의인 樣式으로서 統一新羅時代 石塔에서는 이 三基 외에는 볼 수 없다. 이 樣式이 舍利를 봉안한 塔身部를 받든다는 뜻이 典型樣式에서보다도 강조된 듯한 감을 주나 다음 時代의 石塔에서와 같이 蓮花의 彫飾은 없다.

② 屋身 上端에는 料枳을, 下端에는 난간을 돌리고 上下 屋身 各면 에 莊嚴彫刻이 가해진 石塔이 있다. 石塔 표면에 莊嚴彫刻이 가해지는 일은 九세기 이후의 典型樣式의 石塔에서는 많이 보는 바이지만 대개는

基壇部에 조각되고 塔身部에 조각된 예는 十基 정도에 불과하며 그것도 初層 屋身に 한하였는데 實相寺百丈庵 三層 石塔의 경우는 各층 屋身 各면에 모두 조각이 滿彫되었다. 石塔의 樣式이 木塔의 翻案에서 연유하여 典型樣式의 石塔에서도 木塔의 樣式이 나타나지만 이 塔의 경우는 料枳과 난간을 屋身石 상하에 조각하여 木造建築의 樣式을 뚜렷이 강조하고 있어 屋身に 조각된 莊嚴像들은 난간을 돌린 屋內에 있는 형상이다. 이러한 樣式은 이 塔에서만 볼 수 있을 뿐 전무후무하며 이 石塔후 방에 건립된 石燈 上臺石 上端 즉 火舍石 下端과 접하는 위치에도 石塔에서와 꼭 같은 樣式의 난간이 조각되어 樣式上의 공통점이 나타남은 흥미롭다.

③ 屋蓋石 받침에 蓮瓣을 조각한 石塔이 있다. 典型樣式의 石塔에서는 屋蓋石 밑에 층단형 받침이 三단 내지 五단 있는 樣式이 기본형이지만 實相寺百丈庵 三層 石塔의 屋蓋石 받침은 이 기본형에서 완전히 벗어나 初層과 二層의 屋蓋石 이면에는 층단 대신 一면 六瓣씩과 隅角에 一瓣씩의 蓮瓣이 두드러지게 조각되었다. 基壇部 또는 初層 屋身 밑에 蓮花를 조각하여 蓮花座臺의 뜻을 표시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나 屋蓋石 이면에 蓮瓣을 조각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예는 이 石塔 외에는 없고 高麗時代 石塔에 오직 一基가 있을뿐이다.

④ 이와 유사한 樣式으로 屋蓋石 이면에 三尊坐像을 조각한 石塔이 一基 있다. 實相寺百丈庵 三層 石塔 三層 屋蓋石 이면에는 各면 중앙에 三尊坐像을 양각하고 좌우 菩薩像의 天衣가 길게 좌우로 날려 비스듬히 깎아낸 좌우 공간을 채우고 있다. 屋蓋石 이면에 장식 문양을 조각한 石塔이 後代에는 간혹 건립되었으나 石塔 屋蓋石 이면에 佛像을 조각한 예는 이 石塔 이외에는 없다. 屋蓋石 이면에 三尊像을 조각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屋身石 四면에 四方佛을 조각하는 뜻과 상통한 것이며 더욱이 이 石塔에서는 初層 屋身に 四天王像、菩薩像、童子像 등이 시립하였고 二層과 三層 屋身 四면에는 奏樂像을 조각한 점으로 보아도 塔內的 舍利에 대한 수호와 공양의 뜻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三)全體 形態

全體 形態은 前述한 바와 같이 石塔의 형태 전체가 典型樣式의 石塔 형태와 완전히 달라진 경우를 말한다. 이것도 그 정도에 따라 근본적으 로 변화가 일어난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부분적으 로 증대한 변형이 일 어난 예도 있다.

① 첫째 多寶塔을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佛國寺에 石造 多寶塔이 一基 진할뿐 多寶塔이라는 塔은 石造 木造를 막론하고 이 외에 없다. 多寶塔의 기본형태는 「摩訶僧祇律」의 造塔法에 있다고 하겠으나 佛國寺의 多寶塔은 형태에서 그 기본을 따르면서도 변화가 무쌍하고 治石의 手法이 절묘하며 복잡하면서도 우아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렇기에 前代의 걸작은 後代에 와서 왕왕 模作品이 나타나는데도 이 多寶塔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日本에는 多寶塔이라고 하는 木造塔婆가 있기는 하나 木造이면서도 石造인 佛國寺多寶塔 같은 화려 심세한 架構는 아니 다. 佛國寺多寶塔은 동양불교국가에서는 유일한 石造多寶塔이다.

② 統一新羅時代 石塔 중에 이례적으 로 多層石塔이 있다. 高麗時代가 되면 五層이상의 多層塔이 다수 진립되지만 統一新羅時代에는 三層塔이 대부분이며 드물게 五層 또는 七層의 石塔이 있을 뿐인데 유일하게 十 三層石塔이 진립되었다. 慶州(실은 月城郡 安康邑 玉山里)의 淨惠寺址十 三層石塔(圖31)이니 그것도 塔身部의 크기가 初層에서부터 上層으로 갈 수록 일정한 체감비율을 따르는 典型樣式에서의 원칙을 무시하고 初層 屋 身과 屋蓋石은 특히 壯大하나 二層 이상은 급격히 축소되면서 十三層에 이르기까지 체감되어 마치 二層 이상의 塔身部가 相輪部 같은 착각을 이 르킬 정도이다. 특히 基壇은 앞은 單層基壇이고 初層 屋身은 四隅에 굽은 方形隅柱를 세우고 각 면에는 隅柱에 붙어서 좌우에 短柱를 세우고 상 하에는 下枋과 額枋을 끼웠으며 중앙은 공간으로 남아 龕形이 되었고 屋 蓋石 밑에는 三단의 받침이 높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형태와 石塔도 후 세에 모방작이 나타나지 않아 우리나라 石塔으로서 는 유일한 존재가 되

었다.

③ 다음에 模博塔이 있다. 模博塔은 문자대로 博塔을 모방한 石塔으 로서 재료는 돌이 되 의형은 博塔을 따른 塔을 말한다. 模博塔은 이미 芬皇寺石塔에서 三國時代의 遺例를 보았으나 그 遺風은 統一新羅時代까 지 이어지고 있다. 芬皇寺石塔이 模博塔의 第一類型인 石材를 博形으로 가공하여 축조하는 형식을 취한데 대하여 統一新羅時代의 模博塔은 거 의 모두가 第二類型의 형식에 속한다. ② 즉 典型樣式에서의 塊體性을 유 지하면서 單層의 基壇、屋蓋石 落水面의 層段 표현、屋蓋石 추녀 길이 의 短促化 등 博塔에서 만 볼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나 樣式이다. 博塔 의 축조는 三國遺事에 있듯이 良志가 善德王代에 磚造小塔을 만든 사례 가 있고 ③ 高句麗·百濟에서도 모두 博造 건축물이 있었으며 ④ 遺例는 많지 않으나 統一新羅時代에는 博塔의 축조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서 安東지방에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模博塔의 진립도 증가 되어 模博塔역시 慶州와 安東부근에 집중되어 있다. 博塔에 비하여 模 博塔의 수가 월등히 많고 高麗時代가 되면 模博塔 일색이 되는데 이는 博塔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까닭이 겠지만 그렇다만 博塔을 축조하지 않 고 다만 그 모방에 그친 이유는 분명히 설명하기 어렵다.

④ 끝으로 전혀 형태를 달리하는 石塔이 있다. 方壇形石塔이 그것이 니 가공한 割石으로 면을 고르게 쌓되 平面 장방형이고 上層으로 갈 수록 층단을 이루면서 체감되어 層級은 五단 내지 七단이 된다. 四면에 龕室을 개설하고 石佛을 안치한 예도 있다. 특히 義城과 安東에 있는 이 형식의 두 石塔의 소재지명이 모두 「石塔洞」임은 주목되며 山淸에 소재 하는 「仇衡王陵」이라고 傳稱되어오는 유적도 결국은 이러한 類의 건축 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⑤ 이러한 石塔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특이한 형 식이며 日本에는 이와 유사한 石塔의 예가 있다. ⑥

三、特殊形石塔의 實態

前章에서 우리나라 特殊形石塔의 종류를 분류하여 보았거니와 本章에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약간의 문제를 고찰해 보자 한다.

(一) 單層基壇

統一新羅時代의 單層基壇 石塔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鳳岩寺三層石塔(圖 1)
- ② 聞慶內化里三層石塔(圖 2)
- ③ 直指寺大雄殿앞 三層石塔 二基
- ④ 直指寺毘盧殿앞 三層石塔
- ⑤ 尙州化達里三層石塔(圖 3)
- ⑥ 永川華南洞三層石塔
- ⑦ 靑岩寺修道庵東三層石塔
- ⑧ 表忠寺三層石塔(圖 4)
- ⑨ 華嚴寺東五層石塔

이상의 石塔은 전체 형태가 典型樣式을 따르면서 二重基壇의 下層基壇만 생략한 石塔들이고 石塊形基壇, 佛臺座形基壇의 石塔 또는 模塼石塔 등도 물론 單層基壇이지만 基壇형태는 이와 다름으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상 十基의 石塔은 모두 알고 넓은 下層基壇을 생략하고 地臺石 위에 上層基壇 中石부더가 놓여서 三國時代 石塔의 單層基壇과도 다른 특색있는 基壇樣式이 되었다. 이러한 基壇樣式의 石塔이 十基中 九基가 慶尙道에 건립되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더우기 九基中에서 五基가 聞慶郡內에 위치하고 ⑦ 尙州는 聞慶과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單層基壇 발생의 동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佛臺座形基壇과 관계가 있지 않음

가 하는 추측은 前述한 바 있고 그러한 形式의 石塔이 聞慶郡內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이 形式의 石塔들은 建立年代가 모두 九세기 이후로 추정되며 九基中에서 年代的으로 가장 앞선다고 생각되는 것이 尙州化達里三層石塔인데 이 石塔에서는 基壇 中石을 받치는 臺石 上面에는 角形과 弧形의 물딩이 있고 塔身部 또한 典型樣式을 따르고 있어 下層基壇의 中石 이하만 생략된 石塔이지만 基壇의 撐柱는 一柱로 줄었고 初層 屋身의 高이가 基壇 中石의 高이보다 높아졌고 屋蓋石 밑의 받침은 三層에 이르러 四단으로 줄었으며 屋蓋石 위의 屋身괴임은 角形 一단으로 감축되는 등 약식화와 불균형이 나타나 규모는 매우 壯大하나 건립은 九세기를 넘어선 前半期로 보인다. 다음으로 年代가 비교적 앞선다고 생각되는 鳳岩寺三層石塔은 屋蓋石 받침수가 각 층 五단을 유지하고 있으나 基壇의 탕주수는 一柱로 줄었고 基壇 甲石 上面에는 角弧角 三단의 괴임이 조각되었으나 알고 무거려하며 각 층 屋蓋石 위의 角形의 屋身 괴임도 一단으로 주는 등 역시 略化가 진행되었고 규모도 尙州塔보다 작아져서 尙州塔에서와 같은 雄偉한 기풍이 없어 建立年代를 尙州塔보다 뒤로 볼 수 밖에 없다. 여타의 石塔은 이 兩塔보다 더욱 축소略化되어 建立年代가 떨어져서 統一新羅時代의 單層基壇 形式은 九세기 이후에 尙州 聞慶 등지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二) 佛臺形基壇

佛臺座形基壇을 갖춘 石塔은 到彼岸寺三層石塔과(圖 6) 慶州石窟庵後崗의 三層石塔(圖 7) 二基뿐이다. 到彼岸寺塔은 方形 地覆石 위에 각 측면에 眼象이 조각된 八角 下臺石이 놓이고 위에는 十六瓣의 單瓣伏蓮을 조각하였으며 高은 八角 竿柱를 사이에 두고 八角 上臺石이 놓였는데 밑에는 下臺石에서와 같은 樣式의 十六瓣 仰蓮이 조각되고 上面에는 方形의 高은 괴임을 마련하되 측면이 半圓을 그리며 內彎되어 그 형식이 桐華寺毘盧庵三層石塔의 上層基壇 甲石 上面에 있는 方形의 初層 屋身 괴

임形式과 동일하다. 到彼岸寺石塔은 同寺의 鐵造毘盧舍那佛坐像의 造像銘을 참고하여 景文王 五年(八六五)의 건립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桐華寺毘盧庵塔은 塔內에 藏置되었던 閔哀大王石塔記에 의하여 景文王 四年(八六四)의 建立임을 알 수 있었으니 이 두 石塔의 初層 屋身 階臺의 形式이 동일함은 수공이 같다.

이에 대하여 石窟庵三層石塔은 二重基壇이고 상하 二石으로 구성하되 地臺石에서 下層基壇 甲石까지를 一石으로 만들고 그 위의 上層基壇 甲石까지를 한돌로 만들었다. 地臺石과 상하 甲石은 圓形이고 상하 中石은 八角이며 그 곳에는 모마다 隅柱가 模刻되었고 상하 基壇 甲石 上面에는 각각 角形 二단의 階臺가 있고 上層의 屋身을 받기 위하여 方形이다. 이 基壇의 형태는 單層과 二層의 차가 있을뿐 基本형태는 石窟庵 本尊如來坐像의 臺座형식과 동일하다. 아마도 이곳에 조그마한 願堂을 造營하면서 石窟庵 本尊의 臺座형식을 모방하여 그와 같은 基壇으로 石塔을 건립하였던 모양이며 건립연대는 石窟庵 造營보다는 뒤질 것이나 九세기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三) 石塊形基壇

韓國石塔의 基壇形式은 單層이든 二層이든 建築基壇으로서 地臺石 위에 隅柱와 撐柱를 模刻한 中石이 있고 그 위에 甲石을 덮는 형식인데 이 石塊形基壇은 立方體로 다음은 石塊 八개로 역시 正六面立方體를 구축하여 基壇을 삼아서 典型樣式과는 전혀 다른 모양을 만들었다. 이러한 基壇形式을 가진 石塔은 慶州西岳三層石塔(圖11)과 慶州南山洞三層石塔(圖10)의 二基本이다. 이러한 樣式的 유래에 대하여는 깊이 논의된 바 없으나 塔身部의 樣式이 塼塔을 모방하고 있는 점, 또는 基壇이나 屋身에 隅柱 혹은 撐柱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塼塔樣式에서 유래하였다고도 하였다. ⑧

그러나 慶州南山茸長寺谷三層石塔(圖9)은 山腹에서 돌출하여 밀이 단애를 이룬 자연암석 上面에 角形 二단의 階臺를 마련하고 그 위에 典型

樣式에서의 上層基壇을 구축하였을뿐 上層基壇과 塔身部의 形式은 典型樣式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이 石塔은 자연암반 위에 上層基壇부터 구축하였으나 安東郡吉安面大寺洞 模塼石塔은 자연암석 위에 塔身部부터 구축하여 차이를 보이거나 자연암석을 基壇으로 간주한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慶州 西岳洞과 南山洞의 石塔은 이와 같은 자연암석의 형태를 평지 위에 재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⑨ 이러한 추정은 慶州를 비롯하여 慶尙道一帶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高麗時代 石塔의 이와 유사한 基壇形式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상 統一新羅時代에 건립된 四基의 石塊形基壇의 石塔을 통관하면 慶州西岳洞과 南山洞 石塔의 源形을 茸長寺谷塔에서 찾을 수 있으니 이 점은 건립연대를 감안하여도 타당하다. 이 三塔의 建立年代는 모두 九세기에 들어서의 建立이지만 茸長寺谷塔이 약간 앞설 것으로 보이며 安東大寺洞塔은 이 三塔보다도 더욱 떨어진다.

(四) 四獅子形基壇

獅子는 佛教美術品에서 빈번히 등장하여 石造物에서도 石塔、石燈、浮屠、石碑 등에 널리 조각되지만 四獅子石塔 같이 뚜렷한 예는 없다. 統一新羅時代 四獅子石塔은 다음의 三基가 남아있다.

華嚴寺四獅三層石塔(圖13)

主吏寺四獅三層石塔(咸安)(圖14)

金藏庵址四獅三層石塔(江原道淮陽郡內金剛面長淵里)

이 형식은 基壇 四隅에 間方을 향하여 앉인 獅子 한 마리씩을 배치하여 이 獅子들이 甲石을 받치고 있다. 建立年代가 가장 앞에는 石塔이 華嚴寺獅子塔으로서 이 石塔에는 基壇의 四獅子 중앙에 大德立像을 배치하였고 甲石을 바치고 있지는 않으나 머리 위 甲石裏面에는 蓮花가 조각되었고 獅子 받 밑에는 伏蓮石이, 머리 위에는 仰蓮石이 있고 두 마리는 입을 다물고 두 마리는 입을 벌리고 있으며 조각수법 또한 매우 정교하다. 이보다 뒤지는 獅子塔은 중앙 人物像의 생략, 獅子의 呵形忤形

의 불분명, 獅子 상하의 仰蓮石과 伏蓮石의 생략, 등 약식화의 경향이 나타나며 後代에는 그 경향이 더욱 심해진다.

統一新羅時代에 건립된 三基의 獅子塔중에서 華嚴寺獅子塔의 建立年代가 가장 빨라서 八세기 중엽으로 보이며 다른 兩塔은 九세기로 넘어간다고 생각된다.

(五) 屋身 밑에 別石이 삽입되는 樣式

이 樣式은 高麗時代 石塔에서는 보편화된 樣式이며 따라서 高麗時代 石塔의 하나의 특색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그 원형이 이미 統一新羅時代 石塔에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그 원형을 보이는 聖住寺址의 三層 石塔 三基(圖16·17)는 동서로 나란히 건립된 同一規模, 同一樣式의 塔으로서 建立年代를 九세기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양식의 받침이 조각된 桐華寺 毘盧庵 三層 石塔과 到彼岸寺 三層 石塔은 각각 서기 八六四年과 八六五年의 건립으로 추정됨으로 統一新羅時代 九세기에 이러한 樣式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六) 屋身, 屋蓋石에 특수장엄이 가해진 樣式

實相寺百丈庵 三層 石塔 各층 屋身 下端에는 난간모양이 模刻되고(初層만은 屋身에 있지 않고 地臺石에 있다.) 上端에는 包作이 模刻되어(圖20) 二層과 三層 屋身에 조각된 奏樂像은 난간안에 있는듯이 보이도록 奏樂像의 下半身이 일만 두드러진 난간 사이를 통하여 표현되었다. 또 屋蓋石 처마 밑에는 層段받침 대신 一層과 二層은 別石으로 仰蓮을 조각하여 받쳤고(圖21) 三層에는 각 면에 三尊像을 조각하였다(圖22). 이와 같은 石塔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의는 볼 수 없으며 조각수법 또한 우수한 편이다.

石塔 표면에 莊嚴彫刻이 가해지는 일은 九세기 이후에 유행하였으나 佛·菩薩·四天王·八部衆像이 가장 많이 조각되고 塔身部에 奏樂像을 조각한 예는 없다. 더우기 屋身에 목조건축의 세부양식을 조각하는 일

은 隅柱撐나 柱 이외에는 없으며 屋蓋石 밑의 仰蓮 받침은 그 여운이 高麗時代 石塔에 一基 나타나 뿐이고 三尊像을 조각한 石塔은 全無하다.

塔身部의 기본형태가 典型樣式을 따르는 하였지만 基壇의 구성은 이색적이고 塔身에 이와같은 彫飾을 加한 예는 전무후무하다. 이 石塔의 건립도 九세기 이후로 추정된다.

(七) 模塼石塔

石塔에 비하여 塼塔의 건립이 극히 적은 반면 塼塔보다도 많은 수의 模塼石塔이 統一新羅時代와 高麗時代를 통하여 건립되었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호의 일단을 보여주는 듯하다. 模塼石塔의 型式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第一類는 石材를 塼形으로 가공하여 축조한 것이고 第二類는 典型樣式에서와 같이 石塊形의 屋身石과 屋蓋石을 重積하되 屋身에는 隅柱를 생략하고 屋蓋 落水面에는 層段을 표시하는 형식이다. ⑩ 第一類의 대표는 慶州芬皇寺石塔이오 第二類의 대표는 義城塔里五層石塔(圖26)이다. 그러나 統一新羅時代에는 第二類의 模塼塔이 압도적으로 많이 건립되었고 그것도 安東, 義城, 善山, 慶州 등 竹嶺루트를 통한 佛教文化 전과경로 선상에 분포되고 있음은 주목된다.

統一新羅時代 模塼石塔 가운데서 年代가 가장 올라가는 石塔이 第二類의 義城塔里五層石塔으로서 七세기 말 내지 八세기 초의 건립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善山洛山洞三層石塔, 同竹杖洞五層石塔(圖28)도 八세기의 조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義城塔은 곳곳에 木造塔婆의 樣式이 표출되고 있는 점에서 귀중한 존재이지만 第一類의 형식이 三國時代에 이미 건립되었음에 대하여 第二類의 形式도 第二類보다는 뒤지지만 七세기 말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善山塔에 이어 九세기에 들면 慶州에서는 西岳洞(圖11)과 南山洞(圖10)에서 건립되고 뒤이어 安東에서도 건립되었으니 安東郡 豐山面 下里洞 模塼三層石塔(圖29)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模塼石塔은 七세기 前半期에 건립된 慶州芬皇寺石塔에서 시작하여 많지는 않지만 新羅末期에 이르기까지 건립되었고 그 여운은 高麗時代를 거

처 朝鮮時代까지 이어졌으며 특히 高麗時代 이후에는 慶尙道 이외의 지방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보인다.

(八) 方壇形石塔

方壇形石塔은 慶北義城郡安平面石塔洞(圖24)과 慶北安東郡北後面石塔洞(圖25)에 一基씩 남아있다. 이 兩塔의 형태는 典型樣式과는 전혀 다르고 형태의 유래도 분명하지 않을뿐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의 石塔이 後代에 건립된 바도 없다. 이 石塔은 平面 長方形이고 층단을 이루면서 위로 갈수록 체감되었으며 頂上部에 相輪 같은 시설은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義城塔에서는 下段 四면에 龕室을 만들고 石佛 一軀씩을 安置하였다. 安東塔에는 龕室이 없을뿐 義城塔과 동일한 형식이고 兩塔의 소재지명이 모두 石塔洞이며 安東塔 옆에는 「石塔寺」가 현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特殊形式의 石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慶南山淸郡今西面花溪洞에 駕洛國 仇衡王陵이라고 傳稱되어오는 遺構가 있으니 경사면에 건립된 점이 다른 兩塔과 殊異함으로 이 遺構도 石塔으로 추조되었을지도 모른다. ⑪ 참고로 添言하여 들일 일은 이와 유사한 遺蹟이 日本에도 있어서 戒壇說, 憤墓說 등의 전이 分分하나 石塔說이 유력하다. ⑫

이 兩基의 특이한 石塔의 年代를 羅末麗初로 추정할 바 있었는데 ⑬ 九세기 이후에 安東·尙州지방에서 건립되었던 模塼石塔의 一類型인 割石으로 外面을 고르게 축조하고 혹은 面灰하기도 한 石塔의 형식을 감안했을 때 ⑭ 그러한 樣式이 동기가 되어 九세기말 경에 이러한 石塔이 축조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四、後代에의 영향

이상과 같은 特殊形石塔은 後代에서도 계속 건립되었으니 그 동기로는 혹은 特殊形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부여로서 혹은 樣式的 약식화와

정에서 또는 단순한 모방으로서 등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하 特殊樣式이 後代石塔에서 나타나는 樣相을 보기로 한다.

(一) 單層基壇

單層基壇은 高麗時代 石塔에서는 더욱 유행하고 單層 二重을 막론하고 基壇에 仰蓮 혹은 伏蓮을 조각하며 屋身石 밑에는 仰蓮이 조각된 別石이 삽입되는 등 單層인 동시에 佛臺座의 형태가 강하게 표출된다.

그런데 高麗時代 單層基壇의 石塔形式은 新羅時代 石塔의 單層基壇같이 典型樣式을 따르면서 下層基壇만 생략한 경우도 있지만 (例·益山王宮里五層石塔—圖5) 單層基壇이면서 佛臺座形基壇 石塊形基壇 같은 特殊形式을 겸하고 있는 예가 거의 같은 비율로 많다. 즉 單層基壇의 石塔에는 仰蓮이나 伏蓮이 조각되기도 하고 屋身 밑에 別石이 삽입되기도 하고 建築基壇 대신 岩石을 이용하기도 한다.

어찌하여 高麗時代에 單層基壇의 石塔이 유행하며 여러가지 特殊樣式이 가미된 石塔이 다수 건립되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힐 수는 없으나 典型樣式을 고수하던 統一新羅時代에 비해 高麗時代가 되면 前揭한 여러 特殊樣式 이외에도 三重의 基壇, 六角·八角 등의 多角塔, 粘板岩製의 石塔 등 典型을 벗어난 잡다한 樣式이 출현하는데 單層基壇의 유행도 이러한 氣風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扶餘定林寺址五層石塔을 모방한 扶餘長蝦里三層石塔이 건립되었듯이 義城塔里五層石塔을 모방한 義城水山寺址五層石塔(圖27)이 건립되었고 이 塔들은 물론 單層基壇으로 건립되었지만 高麗時代 單層基壇의 石塔이 대부분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모축소에서 오는 생략의 풍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二) 佛臺座形基壇

여기서 佛臺座形이라 함은 基壇部에 蓮花를 조각하는 형식을 말하며 이러한 基壇의 石塔은 高麗時代에 크게 유행한다. 高麗時代 石塔에서는

典型樣式의 石塔에서도 基壇部에 仰蓮 혹은 伏蓮을 조각하는 수가 있지만 單層基壇에서는 地臺石 上面에 伏蓮을 조각하고 甲石 裏面에 仰蓮을 조각하여 그 형태가 바로 方形 蓮花臺座가 된다. 이러한 형태의 高麗時代 石塔은 상당히 많으며 到彼岸寺石塔의 基壇이 八角인데 대해(圖6) 高麗時代 石塔에서는 方形基壇에도 蓮瓣을 조각하여 四角佛臺座의 형태로 만든 石造 佛敎遺物에 있어 統一新羅時代의 八角平面이 方形化하는 高麗時代의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高麗時代에 유행한 六角, 八角 등의 多角塔에서는 統一新羅時代의 佛臺座形 基壇形式을 뚜렷히 볼 수 있어 그 原形은 到彼岸寺石塔의 基壇形式에서 찾아야 하겠으니 月精寺八角九層石塔을 비롯하여 平壤을 중심으로 지역의 永明寺八角五層石塔, 廣法寺八角五層石塔, 栗里寺八角五層石塔(今在 日本大倉集古館)(圖8), 元廣寺六角七層石塔 등이 예의 없이 基壇에 仰蓮과 伏蓮을 조각하였다.

이러한 樣式은 朝鮮時代에도 전해져서 水鍾寺八角五層石塔, 普賢寺八角十三層石塔에도 基壇에 仰, 伏蓮을 조각하였다.

이러한 基壇樣式이 高麗時代에 크게 유행한 이유 또는 平安道地方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점이 주목되는데 앞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기 에 충분하다.

(三) 石塊形基壇

統一新羅時代의 石塊形基壇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자연암석을 이용하여 基壇을 삼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자연암석의 형태를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자연암석을 이용한 것이 慶州南山茸長寺谷三層石塔(圖9)이며 인공적으로 基壇을 만든 것이 慶州西岳洞三層石塔(圖11)이다. 그러나 茸長寺谷塔의 基壇형태를 인공적으로 번안한 것이 西岳洞塔 基壇형태라면 이 兩者 사이에는 약간의 비약이 인정되나 安東幕谷洞三層石塔(圖12)을 中間樣式으로 본다면 그러한 移行은 가능해진다. 安東幕谷洞塔은 前面에 洛東江이 흐르는 앞은 臺地에 지하에서 솟

은 듯한 方形의 岩石이 있고 그 위에 건립되었다. 安東幕谷洞式의 石塔은 高麗時代에는 더욱 유행하여 法界寺三層石塔, 寧國寺望塔峰三層石塔, 英陽三池洞模磚石塔 등은 자연암석을 이용하여 立方體로 된 암석을 택했으며 月城吾也里石塔은 땅 속에서 솟듯한 平地에 있는 立方體 암석을 基壇으로 삼고 있다. 이상의 高麗時代 石塔의 건립위치는 茸長寺谷塔 같이 前方이 開放되어 단애를 이룬 까닭에 前景을 부감할 수 있는 곳이며 때로는 앞에 河川을 끼고 있기도 하다.

이 樣式이 九세기 新羅에서 발생하였지만 新羅時代에는 주로 慶州와 安東에 數基가 건립되었을 뿐이던 것이 高麗時代에는 지방으로 확산하면서 다수 건립되었고 前方이 개방되는 돌출된 암석 또는 그러한 지점을 택하는 風이 유행함은 필연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 이유를 高麗時代에 유행하던 風水圖讖說에 있을지 모르며 결국은 佛力에 의한 山川裨補의 뜻이 담겨있지 않을까 추정할 일이 있다. ⑮

(四) 四獅子基壇

華嚴寺四獅子三層石塔(圖13)은 보기 드문 걸작이며 統一新羅時代에 이미 같은 걸경내에 四獅子露柱가 건립되었고 또 咸安 主吏寺(圖14), 金剛山金藏庵에서 이 模作이 건립되었다. 高麗時代에는 前代의 여러 石塔樣式을 모방한 石塔의 건립이 유행하였으니 四獅子石塔 또한 예외는 아니며 獅子頻迅寺四獅子九層石塔(圖15), 洪川掛石里四獅子三層石塔이 건립되었으나 형식이나 조각수법은 新羅時代에 따르지 못한다. 獅子頻迅寺塔은 四獅子 상하의 蓮花받침이 생략되었고 중앙의 人物像은 坐像으로 변했으며 洪川塔은 獅子 상하의 蓮花紋石은 물론 중앙의 人物像도 생략되었다.

四獅子石塔은 그 형태가 기발해서인지 朝鮮時代에도 그 모방작이나 타났으니 仙巖寺華山大師舍利塔이 그것이다. ⑯ 명칭이 알려주듯이 浮屠임이 분명하나 塔身部를 네 마리의 獅子가 받치고 있거나 獅子의 배치방향도 다르고 조각수법 또한 매우 치졸하다. 아마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華嚴寺獅子塔에서 착안한 모양이다.

(五) 屋身 밑에 別石 받침

屋身 밑에 別石을 삼입하여 받침을 삼는 형식은 高麗時代 石塔에서 더욱 보편화되어 聖住寺址石塔의 別石 받침의 樣式(圖17)을 충실히 모방한 것이 普願寺址五層石塔(圖18)이니 이 두 石塔의 받침樣式은 거의 동일하여 거리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의 樣式전승으로 보인다. 이 別石 받침에는 開心寺址五層石塔 같이 仰蓮이 조각되기도 하고 昇安寺址三層石塔에서와 같이 別石은 아니지만 伏蓮을 조각하여 屋身을 받치기도 하였는데 屋身 받침으로 蓮花를 이용할 때 仰蓮보다는 伏蓮을 조각하는 樣式이 高麗時代에는 상당히 유행하였다.

한편 統一新羅時代 石塔에서는 初層屋身 밑에만 別石 받침이 삼입되었는데 高麗時代 石塔에서는 初層뿐 아니라 각종 屋身 밑에 삼입되었고 때로는 屋身石보다도 더 큰 받침돌을 삼입하여 주객이 전도된 감을 준다. 서울 弘濟洞五層石塔, 神福寺址三層石塔(圖19), 潭陽邑內里五層石塔, 南原萬福寺址五層石塔 등은 그러한 예들이며 그 여운은 朝鮮時代初에 건립된 洛山寺七層石塔에까지 이어진다.

(六) 塔身部の 莊嚴彫刻

屋身과 屋蓋石 全面에 장엄조각을 滿彫한 實相寺百丈庵三層石塔(圖20·21·22)과 같은 石塔은 高麗時代에는 건립되지 않았고 특히 屋身に 奏樂像을 조각하거나 屋蓋石 이면에 蓮瓣이나 佛像을 조각한 石塔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高麗時代 건립인 金山寺六角多層石塔 最上 二層(현재 屋身石은 最上層 二層만 남아 있으나 屋蓋石은 十一個가 있다)의 屋身石 각 면에 佛坐像을 조각한 점으로 보아 그 이하의 亡失된 屋身石에도 그러한 조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奏樂像은 아니다. 한편 屋蓋石 이면에 蓮瓣을 조각한 예는 高麗時代에 泉谷寺七層石塔(圖23)一基가 있을 뿐이며 三尊像을 조각한 예는 전혀 없고 屋蓋石 이면에 佛·

菩薩을 조각한 예는 佛塔 아닌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다.

(七) 模塼石塔

模塼石塔은 高麗時代에도 다수 건립되었으나 統一新羅時代와 다른 점은 第一類의 模塼塔이 오히려 많이 건립되었다는 점이다. 高麗時代의 일반적 경향과 같이 義城塔里五層石塔(圖26)을 直模한 石塔이 義城郡 春山面水溪洞 水山寺(圖27)에 건립되며 慶州의 西岳洞이나 南山洞 模塼石塔의 石塊形基壇과 유사한 立方體 자연암석 위의 模塼石塔이 지근거리의 月城郡江北面吾也里에 건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목되는 점은 석재를 塼形으로 가공하여 축조한 第一類 模塼塔이 다수 건립되어 堤川長樂里七層石塔, 淨岩寺水瑪瑙塔 등 여러 지방으로 확산되면서도 한편으로는 英陽郡立巖面山海洞의 奉甘五層模塼石塔, 同郡英陽邑의 縣二洞五層模塼石塔 등 거대한 模塼塔을 비롯하여 同郡 英陽邑三池洞에도 자연암석 위에 소규모의 模塼塔이 있어 英陽邑에서 가까운 거리에 三基나 집중되어 있음은 매우 주목된다. 朝鮮時代에 건립된 模塼石塔은 없으나 淨岩寺水瑪瑙塔은 十八세기 이후 수차에 걸쳐 수리되었음을 同寺의 事蹟碑 또는 舍利莊嚴具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현재의 모습은 이러한 수리를 거친 후의 것으로 보인다.

五、結 語

원래 塔婆의 건립에는 형회상의 제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印度에서 高古한 塔婆는 塼築의 圓墳형태였으며 中國에 들어와서는 高樓重層의 木造建物이었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中國式의 木造塔婆에서 一轉하여 그 형태를 石材로서 再現한 石造塔婆가 건립되었다. 統一新羅時代가 되면 木造塔婆樣式에서 考案된 독특한 樣式을 갖춘 石塔의 형태가 定立되었으니 이것을 우리는 典型樣式이라고 불러오고 있다. 이 典型樣式은

新羅時代는 물론 高麗時代를 거쳐 朝鮮時代까지 이어지지만 오랜 시일이 경과하면서 石造기술의 발달, 石塔造型에서의 뛰어난 創意的의 발휘, 前代 遺蹟에 대한 再現意慾 내지는 佛敎的 또는 佛敎外的, 예컨대 風水 地理說이 작용하여 典型樣式과는 다른 樣式的 石塔이 진립되었다. 우리나라에 佛敎가 전래되었을 무렵에는 예배의 대상이 이미 塔婆에서 佛像으로 옮긴 때였지만 그렇다고 塔婆의 신앙적 비중이 소멸되지는 않았던 만치 高麗時代에 들어와서 특이한 地形을 택하여 진립되는 圖識說과의 習合現狀을 제외하면 佛敎를 떠난 변형이나 가미는 없었고 변화의 양상은 실로 다양하여 시대적 특징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

한편 特殊形의 출현은 八세기 중엽의 佛國寺多寶塔(圖30), 華嚴寺四獅子塔 등에서 비롯하였으나 거의 모두가 九세기 이후에 나타나며 石塔의 表面莊嚴의 유행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다. 九세기 이후의 塔婆에 대한 신앙의 회박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高麗時代에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一九八三, 七, 一三)

[註]

① 우리나라 特殊樣式的 石塔에 관한 概說 論文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鄭永鎬: 韓國石塔의 特殊樣式 考察 上, (檀國大學校論文集 第三輯, 一九六九)

鄭永鎬: 韓國石塔의 特殊樣式 考察 下, 檀國大學校論文集 第四輯, 一九七〇)

鄭永鎬: 異型石塔의 몇 가지 例(韓國의美 9, 石塔, 中央日報, 一九八〇)

② 模倣石塔의 類型分類에 관하여는 다음 論巧을 참조할 것

秦弘燮: 韓國模倣石塔의 類型(文化財 第三號, 文化財管理局, 一九六七)

③ 三國遺事 卷三 良志使錫條 參照

④ 高句麗 大王陵, 千秋家 등에서의 銘文塚의 발견, 公州의 百濟 塚築墳墓의 존재 등을 보아 알 수 있다.

⑤ 義城石塔洞石塔과 安東石塔洞石塔 내지는 傳仇衡王陵에 관하여는 다음 論文을 참조할 것

秦弘燮: 所謂方壇式石塔數例(考古美術 一一〇號, 韓國美術史學會, 一九七二)

⑥ 日本例에 관하여는 다음 論文을 참조할 것

秦弘燮: 所謂方壇式石塔數例補(考古美術 二二一·二二二合輯號, 韓國美術史

學會, 一九七四)

⑦ 直指寺에 있는 三基의 石塔은 원래 聞慶郡 山北面 書中里 廢寺址에 도괴되어 있던 것을 一九七四年에 이전한 것이다.

⑧ 李眼會: 韓國石塔樣式과 그 變遷에 관한 系統的 研究(延世大 碩士學位論文 文 一九六)

⑨ 다음 論文을 참조할 것

秦弘燮: 異型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考古美術 一三八·二二九合輯號, 韓國美術史學會, 一九七八)

秦弘燮: 異型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補(考古美術 一四六·二四七合輯號, 韓國美術史學會, 一九八〇)

⑩ 註② 참조

⑪ 註⑤ 참조

⑫ 註⑥ 참조

⑬ 註⑤ 참조

⑭ 例컨대 尙州上丙里石心灰皮石塔(今亡), 安東大寺洞石塔 등이다.

⑮ 註⑨·⑩ 참조

⑯ 崔容完: 仙巖寺의 獅子塔(考古美術 第六卷 第五號, 考古美術同人會, 一九六五)



圖1) 鳳岩寺 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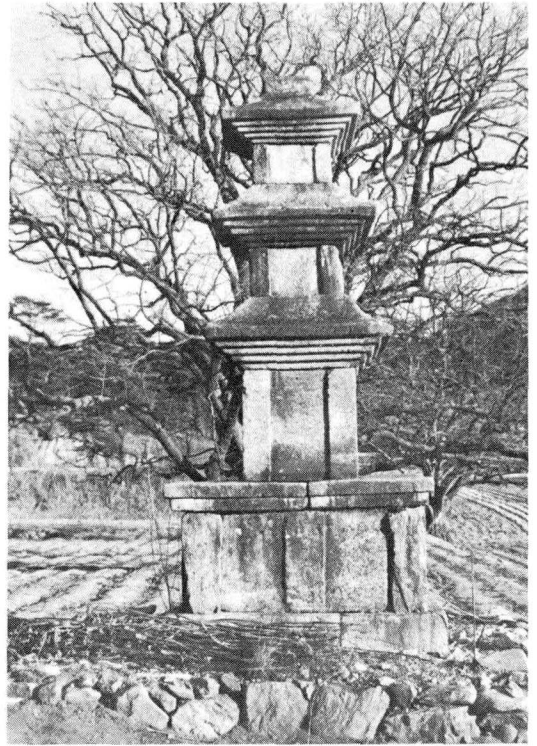


圖2) 聞慶內化里 三層石塔



圖3) 尚州化達里 三層石塔



圖4) 表忠寺 三層石塔



圖5) 釜山王宮里 五層石塔



圖6) 到彼岸寺 三層石塔



圖7) 石窟庵 三層石塔



圖8) 栗里寺 八角五層石塔



圖9) 慶州南山茸長寺谷 三層石塔



圖10) 慶州南山洞 東三層石塔



圖11) 慶州西岳洞 三層石塔



圖12) 安東幕谷洞 三層石塔



圖 13) 華嚴寺 四獅 三層石塔



圖 14) 主吏寺 四獅 三層石塔



圖 15) 獅子頻迅寺 四獅 九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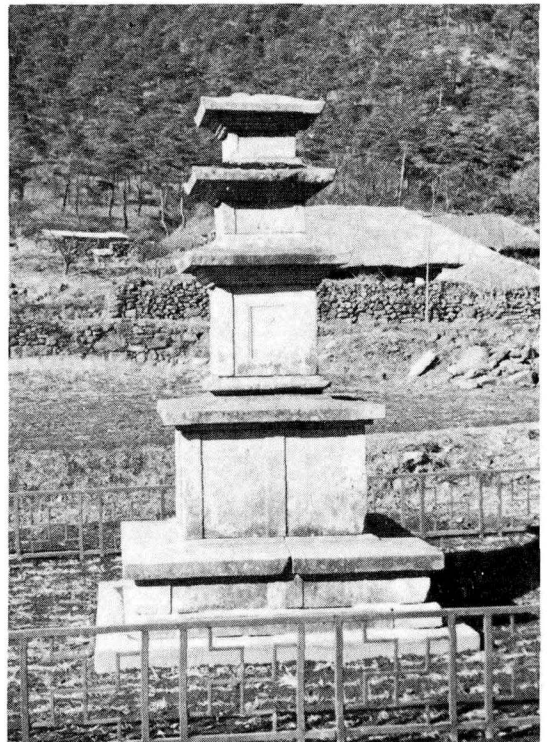


圖 16) 聖住寺 東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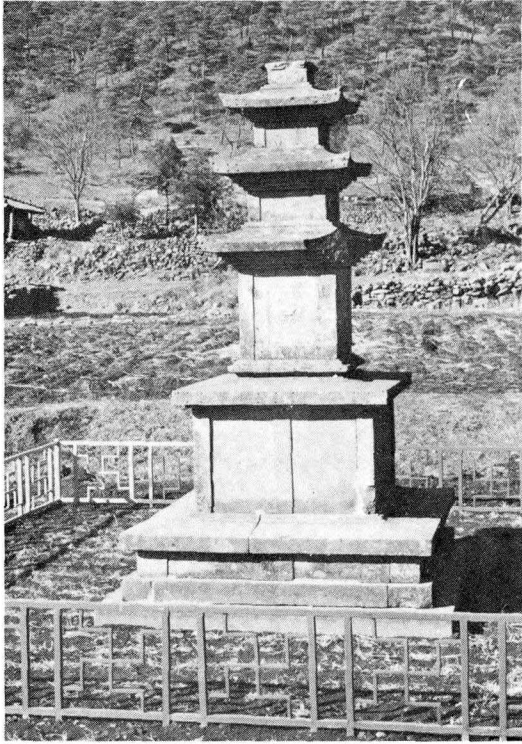


圖 17) 聖住寺 西 三層石塔



圖 18) 普願寺址 五層石塔



圖 19) 神福寺址 三層石塔



圖 20)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 屋身神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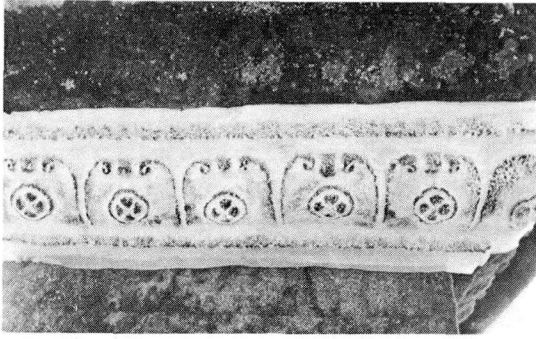


圖 21)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
屋蓋石裏面



圖 22)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
三層屋蓋石裏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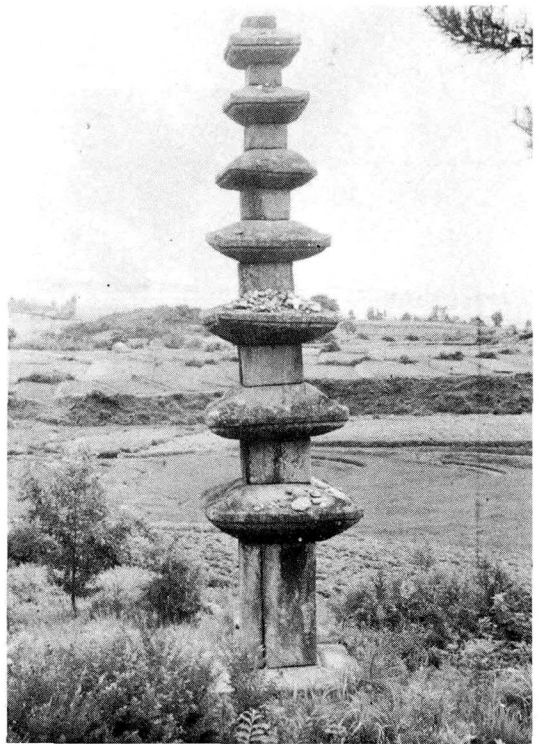


圖 23) 泉谷寺 七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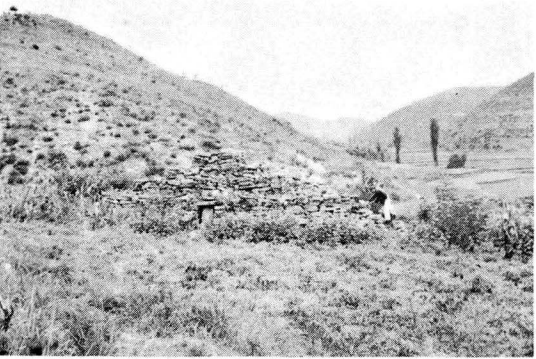


圖 24) 義城石塔洞 方壇形 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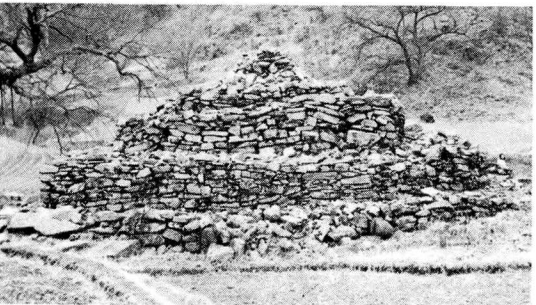


圖 25) 安東石塔洞 方壇形 石塔



圖 26) 義城塔里 五層石塔



圖 27) 義城冰山寺址 五層石塔



圖 28) 善山竹杖洞 五層石塔



圖 29) 安東下里洞 三層石塔



圖 30) 佛國寺 多宝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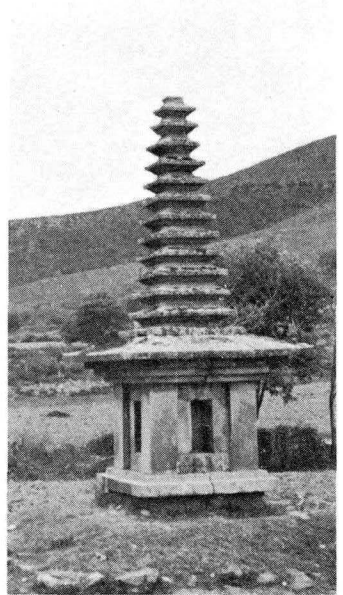


圖 31) 淨惠寺 十三層石塔